

# Power-Gen International(PGI) 2008 참관기(2)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복합화력본부  
박 성 호



## □ 시작하면서

"PGI Conference Presentation" 이것은 나에게 기회이며 위기다.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 현지인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을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까? 저마다 다른 임무를 가지고 곧 미국으로 출발하는 24명(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관계자, 발전교육원 교수,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관, 전기협회 관계자)의 참관자들. 그런데 참관자가 아닌 발표자인 나는 또 상황이 다르다. 남부발전 남호기 사장이 부산복합화력본부를 처음 방문하던 날, 일본개척기 때 유럽으로 간 일본사절단의 예(일본 사절단 중 기술을 배워온 자는 살고, 기술은 배우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부러워만 한 자는 모두 죽임을 당했음)를 들며, 우리 모두 전문가가 되자고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떠돌고 있다. 어떻게 하여야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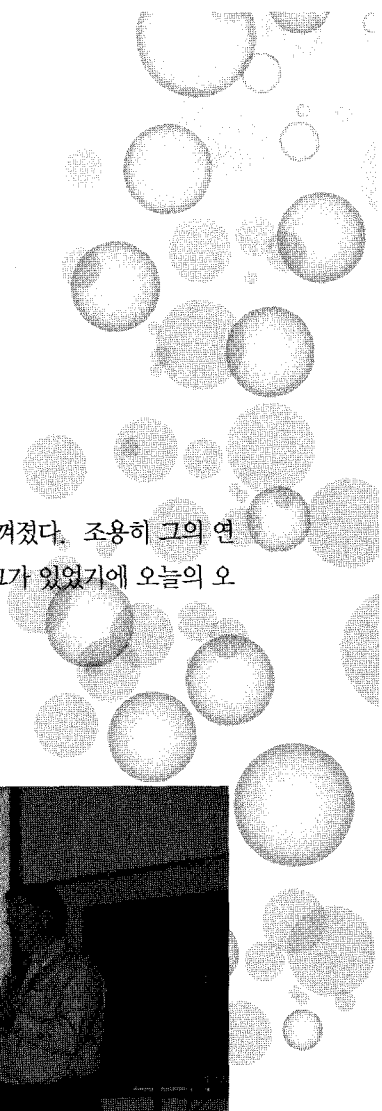
## □ 첫째 날

14 시간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도착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Presentation 자료를 챙겨 보았다. 비행 내내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발표내용을 되새김질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다. 2시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정리해야할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은지...

## □ 둘째 날

전기협회 안실장이 바쁘게 움직인다. 참관단을 위해 하나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 새벽부터 서로를 챙긴다. 애틀랜타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는 장소에 왔지만 안개가 심했다. 호수 옆에 있는 움막(코카콜라 회사가 기증)에서 듣게 된 한 할머니의 오르간 연주는 감동 그 자체였다. 안익태선생이 작곡한 애국가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는 순간 나는 한국인임을 느꼈다. 그





리고 몽클한 무엇이 내 가슴에서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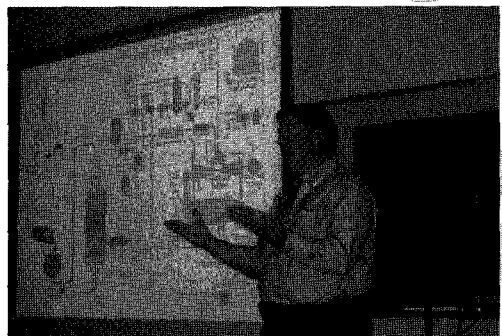
발길을 돌려 마틴루터 킹 목사 기념관에 도달했을 때 마치 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조용히 그의 연설(I have dream)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되어왔음을 생각했다. 그가 있었기에 오늘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비행기가 도착했다. 애틀랜타에서 올랜도로 이동하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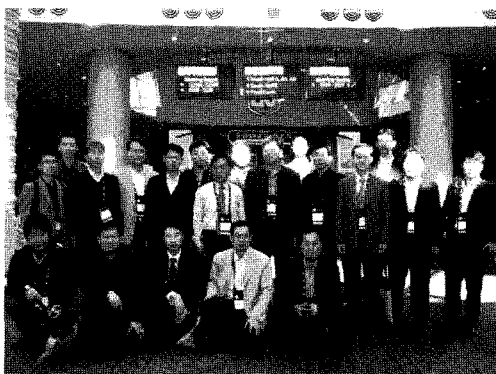
□ 셋째 날

2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IGCC 발전소를 견학하기 위해 새벽에 나섰다. 그 발전소의 장점과 문제점을 들으면서 무에서 유를 만든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다.

오후, 일행과 떨어져 올랜도 Conference 장소로 향했다. 네임 배지도 받고, 자료 데모도 해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얼마나 준비했는가다. 오후 4시부터 저녁 내내 발표 장소까지를 걸으면서 발표내용을 계속 훑어거렸다. 오가는 주위 사람을 의식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 넷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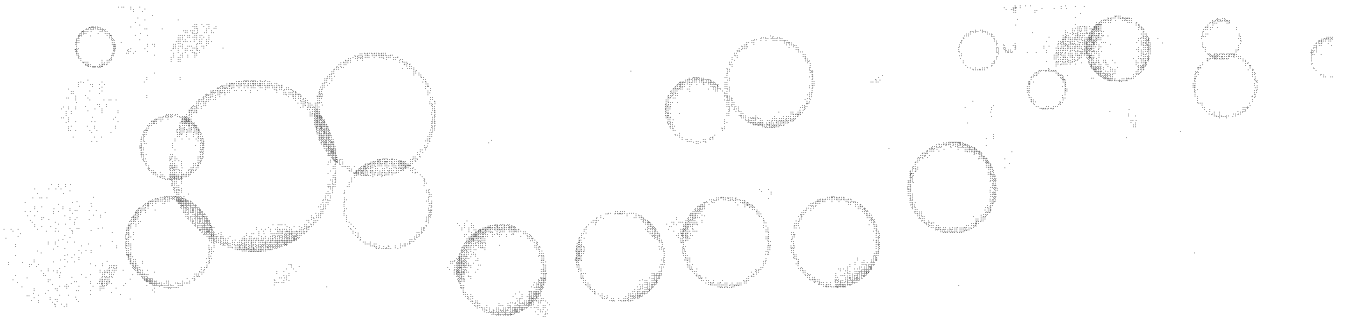


PGI가 시작되었다. 안영태 팀장의 일처리가 매끄럽다. 아침 8시 20분의 호텔출발이 그 이후의 시간 낭비를 많이 줄였음을 곧 알게 되었다. 역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주)순신 사장님이 매장에서 책을 사고자 할 때, 판매원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 책은 2판인데 곧 내년 5월에 3판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장사를 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고객의 마음을 얻은 것 같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니 세상이 더 넓게 느껴졌다.

Opening Keynote 세션에 참석했다. 미래 에너지의 대안으로서 원자력이 부상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화력에 있는 사람들은

은 화력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에 많이 실망한 모습이다. 그러나 미래는 미래일 뿐, 해야 할 일이 많은 현재에 5년 이후의 일에 마음을 움직이고만 있는 것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사절단을 위한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기술을 소개받고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설 수 있는 장소를 얻었다는 것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전기협회와 미대사관에 감사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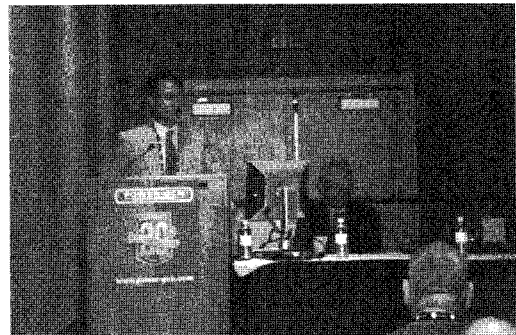
오후엔 중부발전(주)의 Presentation을 참관했다. 준비 전 분위기와 청중의 반응, 진행사항을 체크했다. 그들의 발표가 끝난 후 서로를 위로했다. 발표 후의 해방된 모습이 무척 부러웠다.

컴터로 돌아왔을 때, 미국 상무부에서 준비한 전문통역사를 소개받았다. 그는 내일 내가 스피커로 참여한다는 소리를 듣고 발표내용이 괜찮은지,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 그 앞에서 직접 발표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전문가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순간 부끄럽고 말이 매끄럽지 않다. 그 통역사가 나를 위해 2시간에 걸쳐 지도해 주었는데 창피한 생각이 어느새 감사로 바뀌었다. 순간 발표내용의 재정리가 필요했다. 그의 역할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 다섯째 날

1시간 잤지만 긴장해서 인지 머리는 상쾌하다. 연습만이 자신감을 키운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다. 발표자는 9시까지 가서 좌장과 상의해야 한다. 동료들이 나를 위해 8시 40분까지 차가 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었다. 고마운 일이다. 감사와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발표 시간이다. 첫 30초가 전 시간을 좌우한다. 긴장된 순간이다. 좌장에서부터 소개가 있자 스포링처럼 일어나 Good Morning to you all. Welcome to my session! 힘차게 말했다. 발표할 내용을 쉽고 논리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목소리를 크고 힘차게 만들었다. 발표를 하며 청중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자신감이 충만해짐을 느꼈다. 2개의 질문을 소화한 후 좌장에서부터 Good job 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다. 함께 나누며 발표한 그 시간에 대해 뿌듯했다. 그리고 스스로 감격했다.

컴터로 돌아와서 다시 통역하시는 분으로부터 질문 받은 후 답변 요령을 영어로 배웠다. 그것은 내게 평생 잊지 못할 교육이 될 것이다.

오후 시간, 비로소 회사별 부스를 찾아 세계 기술시장을 둘러보았다. 심미안으로 사물을 바라보라. 그러면 지금은 하찮은 것 같아 보여도 미래엔 돈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 머리에 남는다.

□ 여섯째 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의 하루, 오랜만에 부담을 덜고 마음껏 놀았다. 누군가 이야기하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 마무리

이 과정을 마치면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고 그 것을 통해 무엇을 기대했으며,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가?

영어로 발표하기 위하여, 순간순간 배우고 미지의 세계일지라도 부딪쳐 보며,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얻은 것이 전부일까? 아니 그것보다도 미래를 대비하는 무형의 그 무엇(자신감, 또는 세상을 읽는 안목) 얻은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 생각해본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직 도전할 수 있는 분야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삶을 활기치게 한다. 그리고 여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함을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MERRY CHRISTMAS!! 그리고 내가 도전해야할 새로운 세상에서 2009년의 첫 날을 맞읍시다. HAPPY NEW YEAR!!

